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4년 2월 20일, 오늘 9시 15분(현지시간)에
데레진하 마리아 릴리안 달 산토 수녀님이
브라질 카시아스 도 술 폼페이아 병원에서
82세 62년의 수도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라고 초대하는 시편을 따라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하느님의 백성에게 헌신하며 사목 직무를 단순하고 깊이 있게 사신 릴리안 수녀님의 빠스또렐라로서의 삶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데레진하 수녀님은 1941년 3월 16일 브라질의 차페코에서 태어나셨고, 1941년 5월 26일 차페코의 성 안토니오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6년 2월 15일 카시아스 도 술에서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같은 곳에서 1961년 2월 1일 수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962년 2월 2일 카시아스 도 술에서 마리아 릴리안 수녀로 수도서원을 하였습니다. 1967년 2월 2일에 종신 서원을 하였습니다.

릴리안 수녀님은 초기 양성기부터 단순하고, 너그럽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사회성 있고, 상냥하고, 신심이 깊었으며, 실천적인 지성의 소유자이고 책임감이 강한 수녀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성과 평의원으로 봉사하였고 공동체의 책임자도 하였습니다. 사목 직무에서 사목 일꾼들을 양성하는 영역에서 많이 일하였고 종교 교사로 지낸 적도 있습니다.

62년의 긴 수도생활에서 릴리안 수녀님은 깊은 사랑과 사목적 열정으로 다양한 교회 현실을 받아들이며 봉사하였고, 관구 차원의 봉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였습니다. 첫 서원 때부터 릴리안 수녀님은 브라질의 여러 도시에서 사목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62년 벤토 콘샤베스, 1966년 제돌리오 바르가스, 1970년 포르도 알레그레 -파르테논, 1978년 포르도 알레그레 - 메이아네이라, 1981년 포르도 알레그레 - 알베리오네, 1982년 카우자 페레이라, 1987년 카시아스 도 술 -상. 레오폴도, 1990년 카시아스 도술 - 코호바, 1991년 카시아스 도술 -상. 레오폴도, 1994년 제돌리오 바르가스에서 일했습니다.

1997년 릴리안 수녀님은 우루과이로 선교를 갑니다. 파이산두에서 2년살고, 2002년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파이산두의 레가로 돌아옵니다. 도전이 많은 우르과이의 교회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2003년 릴리안 수녀님은 브라질로 돌아와 카시아스 도 술의 상 레오폴도, 2008년 카시아스 도 술 테르세이라 레과, 2009년 산타나 도 리브라멘또에서 에서 직무를 지속하였습니다. 2012년 우르과이 파이산두에 돌아가 1년을 지내고 2013년 브라질로 돌아와서 산타나 도 리브라멘또, 1015년 론드리나, 2019년 카시아스 도 술 베타니아 공동체, 2020년 카시아스 도 술 코호바 그리고 2021년 카시아스 도 술 베타니아 공동체에서 직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수녀님들은 릴리안 수녀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수녀님은 빠스또렐라의 축성 봉헌 생활과 카리스마와 사목 사명에 충실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투병생활 동안 지녔던 평온한 모습에 모두 놀랐습니다. 기쁘게 생활하였고, 기꺼이 내어놓고, 봉사를 잘하였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 관구에 하느님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형제적 사랑이 깊고, 생동감 있고, 관대하고, 친밀하고, 기쁜 삶의 증거자였고, 수도회와 관구와 특히 가난한 이들의 요청에 응답을 잘하였습니다.

릴리안 수녀님은 헌신적이었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았고, 자신의 병에 대하여 앓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은 오래갔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동료 수녀들과 의료인들을 동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폼페이 병원에서 혈액투석 할 때에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병자들 사이에서 복음 선포자였습니다. 환자들을 하느님의 현존과 부활과 성탄 축일의 근본 의미와 기억과 기도로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릴리안 수녀님은 마지막 시기를 건강 문제를 직면하면서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수녀님들과 의료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수녀님을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영적으로 지지해 준 관구의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릴리안 수녀님을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면서, 이 수녀님께 전쟁으로 파괴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의 평화를 위하여 전구 해 달라고 청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파티마 발현의 목동인 성녀 히야친타 마르토 축일에

로마에서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또 푸엔떼스 수녀